

여름 김장김치 나눔으로 폭염 속 복지사각지대 해소

두성재단, 9일 해남사회복지관서
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주목
250포기 김치 담가 관내 주민 전달
식생활 악화 보완...정서적 돌봄도

겨울철에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깬
여름 김장 나눔이 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
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다.

이번 나눔은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 환
경이 취약해진 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
소하려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주
목받고 있다.

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(대표이사 정
영희)이 오는 9일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
서 ‘여름 김장김치 나눔 행사’를 개최한
다.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30여 명이
참여해 김치 250포기를 담가 해남 관내
식생활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.

이번 나눔은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
어, 기후위기와 폭염에 따른 식생활 악
화, 조리 부담, 영양 불균형 문제를 실질
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통합 복지사업으
로 추진된다. 김치를 통해 영양 공급은 몰
론, 이웃 간 정서적 유대감 회복과 사회적
고립 해소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.

김영동해남종합사회복지관장은 “지구
온난화와 해양온도 상승, 엘니뇨 현상,
인간 활동 변화로 인해 여름이 빨라지고
더 길어지면서, 폭염의 강도도 갈수록 커
지고 있다”며 “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김



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(대표이사 정영희)이 오는 9일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‘여름 김장김치 나눔 행사’를 개최한다. 사진은 지
난해 7월 지역 외국인 200여명을 초청해 해남군가족센터에서 개최한 ‘제15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’ 모습. 두성재단 제공

치는 조리 없이 섭취 가능한 발효식품이
자,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
매개체가 된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이번 김치 나눔은 단순한 생계지
원을 넘어, 건강·정서·공동체 복지를 아
우르는 여름철 복지 모델로 자리잡을 수
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두성재단은 김치 전달과 함께 정기적
인 안부 확인과 애로사항 경청을 병행하
며, 정서적 안정까지 기여하는 돌봄 서비

스를 확대할 방침이다.

정영희 대표이사는 “김치 제공을 통해
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식비의 약 10~15%
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”며 “무더위
속에서도 이웃의 건강과 삶을 챙기는 지
속 가능한 나눔 사업으로 이어가겠다”고
밝혔다.

한편,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은 1988
년 고(故) 승정 이정일 전 국회의원이 사
재를 출연해 설립했다.

‘누구도 소외되지 않고, 근심 없이 모
두가 행복한 지역사회’를 만들겠다는 취
지 아래, 해남과 진도를 중심으로 다양한
복지시설과 사업을 운영 중이다.

현재는해남종합사회복지관,해남군건
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복지어린
이집, 진도지역자활센터, 재가장기요양
기관, 프로젝트사업단 등을 통해 광주·전
남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
하고 있다. 조진용 기자

해남군,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...세부과제 선정·실행계획 수립

유령건축물 정비 등 3개 과제
연말까지 과제 이행 상황 점검

전라남도 해남군이 ‘군민 체감형’ 적극
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한다.

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적
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적극

행정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 선정과 실행
계획 수립을 심의·의결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
정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군정 주요 현안과
군민 불편해소,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
에서 발굴된 적극행정 과제들을 심도 있
게 논의하고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
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제를 선정

했다.

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
를 더욱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
출하기 위해 군민체감형 세부과제를 확
대해 나가기로 했다.

심의를 통해 △벼 재배농업인 소득 공
동지원 사업(유통지원과) △유령건축물
일제 정비사업(건축허가과) △찾아가는

보건소 물리치료버스 운영(보건소) 등
총 3건의 핵심 세부과제를 최종 확정했
다.

위원회는 선정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
인 실행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며 종합적
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.

군은 이번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연말
까지 과제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
고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군
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.

해남·전연수 기자

강진군,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
해산물 익혀 먹기·식기 소독 등

전라남도 강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
맞아 비브리오패혈증에 각별한 주의를
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.

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 서
천군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확인
된 이후 지난 5월 태안군에서 국내 첫 비
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.

비브리오패혈증은 제 3급 법정 감염병
으로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인 5~10월에
주로 발생하고 치사율이 약 50% 정도로
높은 중증 질병이다.

비브리오톨니피쿠스균에 의해 감염된
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
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접촉할
경우 감염될 수 있다.

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오한, 혈압 저
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이며 대부분 증상
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긴다. 피
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
(출혈성)을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넓어
지며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.

치사율이 높은 만큼 즉각적인 치료가
필요하며 특히 만성간염, 간경화, 간암
등 간 질환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면
역저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은 신속히
치료를 받아야한다.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으로는 △어
패류는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익혀먹기
△어패류 5도 이하 저온보관 및 취급시
장갑 착용 △오리한 칼이나 도마는 소독
후 사용하기 등이 있다.

비브리오패혈증 집중관리 기간인 6~
10월까지 관내 어패류 취급업소 수주관
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해안가인 마
량, 대구, 칠량, 신전 등 7개소에서 주 1
회 해수온도 측정 및 바닷물 채취로 비브
리오 패혈증균 오염도를 조사할 예정이
다. 강진·김윤복 기자

완도군, ‘공동 육아 나눔터’ 가족센터 개관...“복합 가족 복지 공간 마련”

전라남도 완도군은 최근 가족 복지와
공동체 돌봄의 거점이 될 ‘완도군 가족센
터’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
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.

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
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1층에는 다목적
소통 공간, 커뮤니티실이 2층에는 공동
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
실 및 한국어 교실이 마련됐다. 3층에는
상담실과 사무실, 4층에는 교육실, 요리
교실, 동아리방 등 다양한 가족맞춤형 공
간이 조성됐다.

가족센터에서는 육아, 상담, 다문화가
정 지원은 물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
양한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될 예
정이다.

특히 군은 아동·청소년, 다문화가정, 1
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
고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‘생활 밀착형
가족 복지의 중심지’로서 중추적 역할을
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신우철 완도군수는 “가족센터가 가족
애(愛)를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모든
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
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”면서 “아이부터



완도군 가족센터가 개관 후 운영에 들어갔다.

완도군 제공

어르신까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
폭넓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

겠다”고 말했다.

완도·정태영 기자

목포시,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
현장 실습 중심 응급대응 교육

전라남도 목포시는 2025년 노인
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
여 중인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대응
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
(CPR)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
혔다.

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과 27일
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노인일
자리 조별 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
해 실질적인 응급대응 훈련을 받았
다.

교육은목포한국병원 전문강사가
진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(CPR)
이론, 자동심장충격기(AED) 사용
법, 위급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실습
중심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바로 적
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.

목포·정기찬 기자

